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시편 23:1-6 요한복음 10:7-10

정윤돈 목사님

지난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7, 8년 전에 와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참사랑교회가 완전히 거듭났다.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고 하셨다. 우리가 사명도 많고 기대할 부분도 많다. 램프부터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서론 :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신약성경 앞에 보면 4권의 책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내용이 다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가? 기계적 영감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불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료도 있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족보가 길게 언급되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는다. 새가족으로서 성경을 보면서 대단한 말씀이 있을 줄 알고 신약성경을 펼쳤는데, 족보부터 나와서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다.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의 이방 여인이고,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의 이단자로 생각한다.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오시리라 약속했던 메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물리치는 왕이었다.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과 맞아 떨어진다. 그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필요 없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로마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간결하게 복음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역사를 서술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긴 기록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무미건조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이야기가 있지만 변증적인 것이 많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징계하고 꾸짖는 것이 많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꾸짖람하고 저주하는 내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 마가복음은 정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누가복음은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오늘 나눌 요한복음은 다르다.

(1) 예수님이 돌아키시고 40, 50년이 지나서 복음이 많이 확산된 후에, 예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풍요롭고 은혜롭게 전달해야겠다,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이 10번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두 번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어릴 때부터 병들었던 맹인을 고치신 것이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하기 위해 뽑아낸 것이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적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떠돌아 다 적을 수가 없다'고 했다. 왜 그렇게 기록할 것이 많은지 목상을 해 보았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다. 이런 공생애의 날들이 1,000일 정도 되는데, 매일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다 적으려면 방대한 양이다. 특히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먹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었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삶의 병, 육신의 병까지 치유되었을 것이다. 이번 주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MRI를 찍었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제 뇌보다 깨끗하십니다'했다. 대장내시경도 했는데, '너무 깨끗해서 4-5년에 한 번씩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약한 부분도 치유된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때 육적인 질병 해결도, 사회, 개인 문제 해결도 따라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진리, 생명, 사랑이라는 단어들 많이 나온다. 복음의 역기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 사도가 간절히 바랐던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열두제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겨우 술, 담배를 끊는 수준이다. 우리가 약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남을 미워한다. 변화되지 않는다.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한탄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기도하면 올바른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목사님들도 성령 줄 모르고 발을 씻어줄 줄 모른다. 그러면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너희도 서로 섬기고 존중하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영적상태가 되기를 축원한다. 인간이 잘 못 하는 게 10가지여도, 한 가지라도 잘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로 10가지 단점을 덮는 게 복음이다.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가족도 부족한 게 많다. 많은 것을 잘못하고 비판할 게 많지만 그렇게 하면 지옥이 된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너희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내가 그런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걸어간 그 길이 진리다. 생명, 영생, 십자가이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고, 기뻐하고 미소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풍요로우신 분이시며, 그 풍요와 내가 아무 관계없게 되는 것이다. 참 복음, 참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참사랑교회 아닌가? 참사랑을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30번이 나온다. 매 장에 7, 8번 나온다. 석가모니 아버지 들어봤는가? 다른 종교에서 아버지를 들어봤는가? 우리만 아버지라고 한다. 무당당이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속은 것이다. 요한복음 8:44에,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했다. 마귀는 우리를 울무로 잡아넣고 자녀로 삼지 않는다. 7장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줄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신다. 어떤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나는 우리 램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왜 안 그런 부분이 있을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타워를 지을 때 기초 쌓는 것을 봤는데, 정말 깊었다. 반석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만약에 기초를 쌓지 않고 계속 올린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에도 실패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고 헌신하지 않고 십일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려고 하면 그만 하라고 할 것이다.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빛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했다. 지금도 '기독교만 다냐?' 한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자기 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줄 믿는다. 우리 같이 악한 사람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석가모니, 공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 되게 만드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

(2)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31에 나와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하여금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천국 생명인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먹고 노는 곳이다. 고생과 질병이 없는 곳이다. 행복, 기쁨, 만족만 있는 곳이다. 어떤 분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냥 영생 하는 게 아니다. 지옥에 가도 영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3)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초대교회 당시에 흠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재해석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더욱 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산상보훈만 계속 읽는다면 율법주의로 빠졌을 수 있다. 요한복음이 있어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여유로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 함이 아니다. 쉽고 가볍다고 하셨다. 우리를 세상과 사탄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의(稱義)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니고, 자유케 하시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니 믿으시기 바란다. 우선순위가 바뀌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그치게 하고 내리게 했던 그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되겠다. 거듭난 베드로는 그림자만 스쳤는데도 병이 나았다. 그런 영적 서민의 체험을 해야 되겠다. 바울은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다. 실천은 하지 마라. (웃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풍성함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절대적인 풍족함이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풍요로움이다. 사도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영적 여유가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다.

1.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들이 누리고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겠다.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1) 다윗이다. 다윗은 모델적인 시를 지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시이다. 시편 23:1에,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한 마디면 완전 복음이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부족하다. 다윗은 영적상태가 오직 여호와 한 분 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 때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다윗처럼 헌당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는다. 방법은 다윗의 영적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교단이 거듭나는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곳이 설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광야가 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의 어려움이 시냇물이요 물가가 될 줄 믿는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있고 입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목욕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다.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가? 그만큼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저주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세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 뜻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지금 바꾸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라고 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겸손하게 진리를 찾다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원을 들었다. 가나안 혼인 잔치도 니고데모 때문인지 모른다. “랍비여, 이 표적은 선생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실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공허하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식이 많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은혜를 받아 더 중요한 것을 알았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을 몰랐고 만족함이 없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허망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것 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게 없으면 공허한 상태가 되지만, 복음만 있으면 거기가 풍요로운 상태가 된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다.

(3) 수가성 여인이다. 수가성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삶,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수가성은 작은 성이다. 거기에서만 남편이 다섯 명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다. 참 부끄러운 삶의 상태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증인으로 나섰다. 전도를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일까? ‘나는 창피하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전도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핑계라고 생각한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절대 감사를 했다. 조건과 모든 환경을 넘는 절대적 평안을 누렸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중에도 행복을 잃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다. 요한복음, 요한일기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2.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1) 첫째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특권인 신분과 권세를 항상 사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시민권이 없다면 모든 게 불편하다. 인간은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진정한 시민권과 신분이 회복되어야 사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다. 나의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고, 38년 병자가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다.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결론과 해답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란다.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2) 둘째로, 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것을 찾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λογος)’라고 되어 있다. 원래 이 단어

는 사도 요한의 때에서 500년 전부터 써 왔던 말인데, 이 말을 완전히 재창조했다. 영지주의를 깨부수었다. 학문을 재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증명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를 고친 것, 베테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오친 명을 먹인 것, 물위를 걸은 것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친 것, 나사로를 고친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임(ego, eum)’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기 3:14에 보면,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이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문장구조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와 똑같다. 우리가 한글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못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도마다. 상처 입은 주님의 손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로,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바로 복음 실천 현장이다.

①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현장에 가셨다. 제양지대, 사각지대인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황금어장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도 현장을 찾으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미국에서 대통령도 성경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 ‘우리 백인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②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할 현장을 알려주셨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양육할 나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새가족을 양육하는 말씀운동 현장이 다량방이다.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팀 사역이다. 가정에서 응답을 누리고 제자를 따로 세워 양육하는 것이 미션 홈이다. 전문현장과 전문팀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전문교회다. 전문성만 발휘하면 의미가 없다. 전도운동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흠을 끼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지교회 운동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현장이다.

결론 :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생명을 앞당길 수 있을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1)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기준과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2장, 포도주가 떨어져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바꿔라.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처럼 각인을 바꿔라. 자기의 모든 사상, 이념, 율법주의, 종교를 다 바꿨다. 거듭났다. 훌륭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종교, 지식을 다 바꿔라. 거듭나시기를 축원한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웃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는 안 된다는 체질을 바꿔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줄 믿는다.

(2)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미션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암송하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요한복음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삶과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